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0

<http://sri.kostat.go.kr>

2020



통계청

통계개발원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진미정 (서울대학교)

- 출산율 감소와 세대 분리 현상으로 가족규모가 작아지고, 1인가구, 1세대가구, 2세대가구비율 차이가 줄어들어 지배적인 가구유형이 없어지고 다양성이 커지고 있다.
- 1인가구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20대 청년층에서 두드러진다.
- 혼인율은 2011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평균 초혼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편,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2018년 이후 2년 연속 증가하였다.
- 조이혼율은 2005년 이후 완만하게 낮아지고 있으며, 평균 이혼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 결혼에 대한 규범은 약해지고 동거에 대한 규범은 허용적으로 변화한다. 결혼 후 출산의 당위성에 대한 규범도 약해지고 있다.
- 부부가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보다 약 4배 많다.
-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가족관계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읽을 수 있다.
- 영유아 돌봄과 노부모 돌봄을 가족과 사회가 함께 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돌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가족과 가구의 변화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단위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기서는 가족과 가구의 변화를 가족구조, 가족

형성, 가족관계, 가족 돌봄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변화 동향을 살펴본다. 가족구조에서는 가구 구성과 규모, 가족 형성에서는 결혼과 이혼, 가족관계에서는 성역할태도, 결혼·동거에 대한 태도, 출산에 대한 태도, 마지막으로 가족 돌봄에서는 자녀돌봄과 부모부양에 대해 다룬다.

가족구조

2020년에 살펴본 가족구조의 변화 동향은 가구 구성의 다양화, 가구 소규모화, 1인가구 증가 가속화로 요약된다.

가구구성의 변화 및 규모 축소

한집에 사는 사람 수가 점점 더 적어져 가구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 평균 가구원 수는 2018년 2.44명에서 2019년 2.39명으로 0.04명 감소하였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1인가구와 1세대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19년 기준 각각 30.2%, 18.4%를 차지하는 반면에 2세대 가구의 비율은 감소하여 2019년에는 45.3%이다. 이러한 변화로 미뤄볼 때 2세대 중심의 지배적인 유형이 사라지고 가구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Ⅱ-1).



〈표 II-1〉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와 세대구성, 1990~2019

연도	평균 가구원수 (명)	세대별 구성비율(%)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비친족 가구
1990	3.7	9.0	10.7	66.3	12.5	1.5
1995	3.3	12.7	12.7	63.3	10.0	1.4
2000	3.1	15.5	14.2	60.8	8.4	1.1
2005	2.9	20.0	16.2	55.4	7.0	1.4
2010	2.7	23.9	17.5	51.3	6.2	1.2
2015	2.5	27.2	17.4	48.8	5.4	1.1
2019	2.4	30.2	18.4	45.3	4.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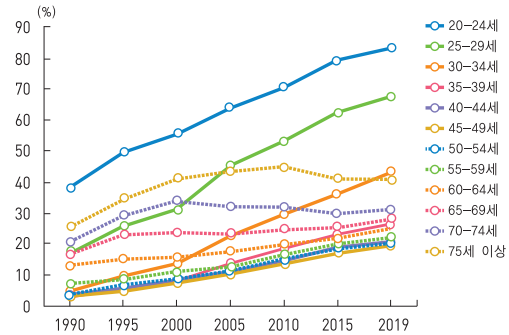
주: 1) 1세대 가구는 부부, 부+기타 친인척 등 동일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2) 2세대 가구는 부부+자녀, 부+자녀, 모+자녀 등 2개의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3) 3세대 이상 가구는 부부+미혼자녀+양친 등 3개 이상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4) 「인구주택총조사」의 1990~2010년 자료는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 이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1인가구 증가 가속화

1인가구는 생활과 관계 단위가 분리되는 삶의 양식이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현상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 단위를 영위하는 삶의 양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인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9년 30.2%로 3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9년 현재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 18.2%, 30대 16.8%, 40대 14.2%, 50대 16.3%, 60대 15.2%, 70대 이상 18.4%로 70대와 20대가 서로 비슷하게 많다.

연령대별로 일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대 73.2%, 30대 33.2%, 40대 20.5%, 50대 20.8%, 60대 26.4%, 70대 이상 37.2%로 20대 가구 중 대다수가 1인가구이다(그림 II-1).

〔그림 II-1〕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 1990~2019



주: 1) 1인가구 비율은 해당 연령집단 일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2) 「인구주택총조사」의 1990~2010년 자료는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 이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가족형성

전통적으로 가족이 형성되는 경로는 혼인, 출산, 입양이지만, 이혼과 미혼 출산도 가족을 형성하는 새로운 경로가 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이나 미혼부/모 가족은 절대적인 수는 많지 않지만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결혼에 대해서는 이슈페이퍼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혼인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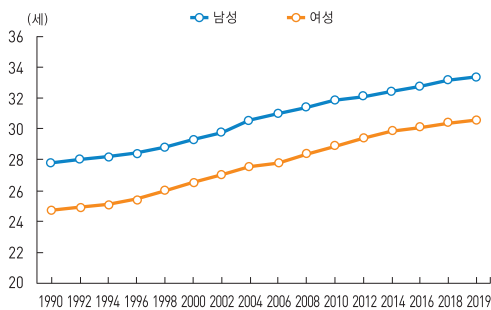
2019년 혼인건수는 23만 9,159건으로 전년 대비 1만 8,463건(7.2%)이 감소하였다. 2010년 혼인건수가 32만 6,104건이었으므로 지난 10년 사이 혼인건수는 8만 6,945건이 감소하였다. 2011년 이후 혼인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조혼인

을 역시 지난 10년 사이 6.5건에서 4.7건으로 감소하였다. 혼인건수가 계속 감소하는 것은 해당 연령대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 및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약해지는 현상과도 관련된다.

만혼화 경향

평균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계속 높아지고 있다(그림 II-2). 2019년 기준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33.4세, 여성은 30.6세로 전년보다 0.2세씩 높아졌다. 여성을 기준으로 볼 때, 연령별 혼인건수는 25-29세(전체 혼인건수의 34.2%)에서 가장 많지만, 40세 이후 혼인건수가 전체의 15.4%를 차지하여 중년기 이후 결혼도 적지 않다. 남녀 모두 재혼은 2019년 전체 혼인건수의 12.3%로 2009년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지만 초혼의 감소 추세보다는 급격하지 않아 중년기 이후의 재혼이 일정 비율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남성의 평균 재혼연령은 49.6세, 여성은 45.2세이다.

[그림 II-2] 성별 평균 초혼연령, 199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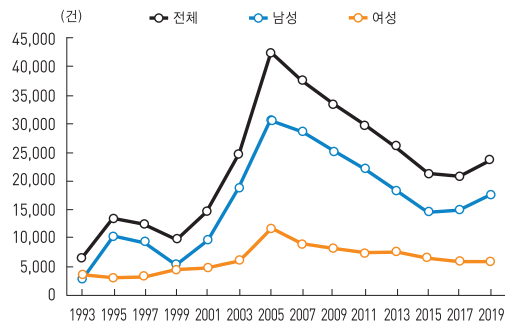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외국인과의 혼인, 2년째 증가

외국인과의 결혼은 2019년 기준 총 2만 3,643건으로 2018년보다 4.2% 증가하였다.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2005년에 4만 2,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에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그림 II-3).

[그림 II-3]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1993-2019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이혼율의 변화

이혼은 하나의 가정이 두 개의 가정으로 나뉘는 현상이다. 이혼건수는 2003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다가 2016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이혼건수는 11만 831건으로 전년도 10만 8,684건보다 2% 증가하였다. 유배우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인 유배우 이혼율은 4.5건이며,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인 일반 이혼율은 남성 5.0건, 여성 4.9건이다(표 II-2).

이혼연령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19년 기준 남성과 여성의 평균 이혼연령은 각각 48.7세, 45.3세로 2000년에 비해서 남성 8.6세 여성 8.8



세 증가하였다(표Ⅱ-2). 이혼연령의 증가는 만혼으로 인해 결혼연령 자체가 높아진 탓도 있지만 결혼생활을 오래 유지한 중장년층의 이혼이 증가한 이유도 있다. [그림Ⅱ-4]를 보면, 2005년 30대와 40대 남성의 이혼율은 각각 해당 연령 남자 인구 1,000명당 10.7건과 11.3건이었으나 2019년 6.1건과 8.4건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50대 이상의 이혼율은 2005년 4.4건에서 2019년 5.2건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여성의 이혼도 2005년 30대와 40대 각각에서 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12.6건과 9.6건이었다가 2019년에 각각 8.2건과 8.9건으로 이혼율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 2005년 2.1건에서 2019년 3.5건으로 증가하였다.

중노년 세대의 이혼이 증가하는 현상은 중노년기가 길어지고 중노년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표Ⅱ-2〉 이혼건수, 이혼율 및 평균이혼연령, 199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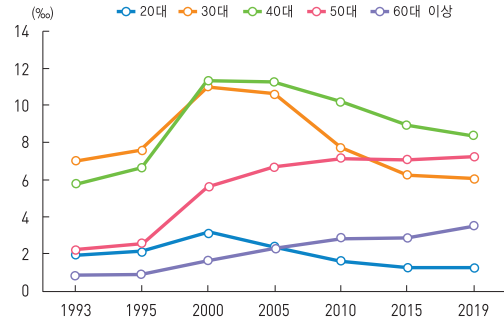
연도	이혼건수 (1,000건)	조이혼율 (%)	일반이혼율(%)		평균이혼연령(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90	45.7	1.1	2.9	2.8	36.8	32.7
1995	68.3	1.5	3.9	3.9	38.3	34.5
2000	119.5	2.5	6.4	6.3	40.1	36.5
2005	128.0	2.6	6.6	6.5	42.1	38.6
2010	116.9	2.3	5.6	5.6	45.0	41.1
2015	109.2	2.1	5.0	5.0	46.9	43.3
2019	110.8	2.2	5.0	4.9	48.7	45.3

주: 1)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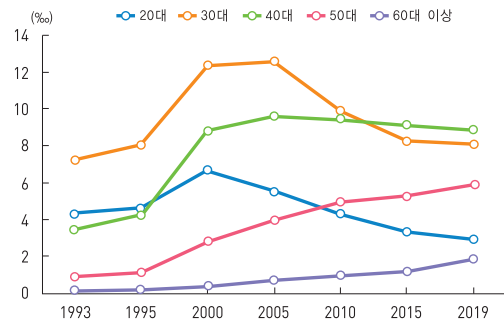
2) 일반이혼율은 15세 이상 남자 또는 여자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그림Ⅱ-4] 성 및 연령별 이혼율, 1993-2019

1) 남성



2) 여성



주: 1) 성 및 연령별 이혼율은 해당 연령 남자 또는 여자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가족관계

결혼 및 동거 가치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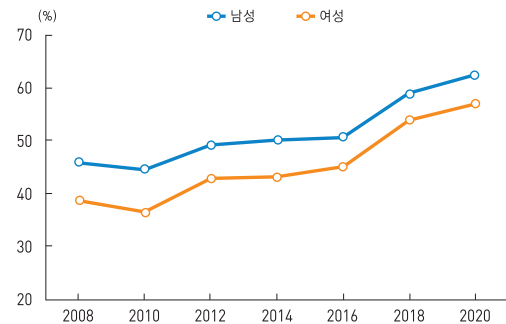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한국 사회 규범이 급격히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지난 20년 동안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 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는 '비혼', '졸혼', '사회적 가족과 같은 신조어에 반영되어 있다. 결혼에 대한 태도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1998년에는 남성의 18.4%와 여성의 28.9%가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하였으나 2020년에는 이 응답 비율이 남녀 각각 35.4%와 47.3%로 증가하여 결혼에 대한 유연한 태도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현재 남성의 58.2%, 여성의 44.4%가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에 대해 대해 긍정적이었고, 이 비율은 남녀 모두 2018년보다 높아졌다(그림 II-5).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같이 사는 동거에 대한 태도도 계속 허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하

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남성의 62.4%와 여성의 57.0%가 '약간 동의' 혹은 '전적으로 동의'라고 응답하였다(그림 II-6).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의 필수성 및 동거에 대한 동의 정도가 모두 높아 이성 간 친밀한 관계성에 대한 선호와 기대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6] 성별 동거에 대한 태도, 2008-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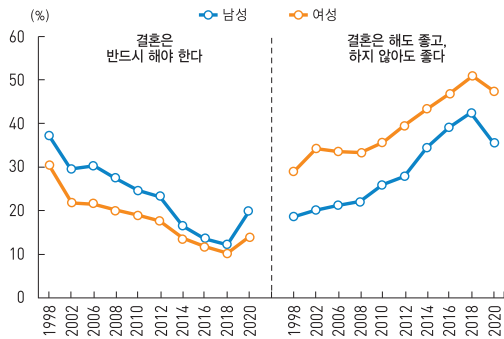
주: 1) 2008-2010년은 만 15세 이상 인구,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전적으로 동의'와 '약간 동의'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II-5] 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 1998-2020



주: 1) 1998-2010년은 만 15세 이상 인구,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등 6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여기에서는 결혼에 대한 당위적 태도와 선택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의 응답률만을 제시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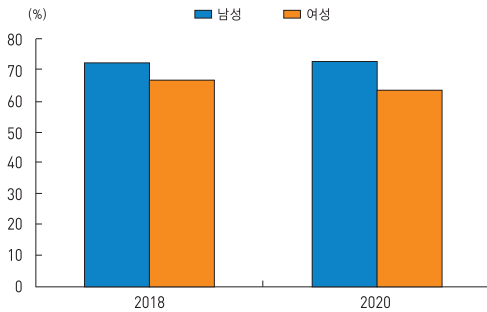
출산 및 자녀양육 가치관의 변화

이성간 친밀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허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에 비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치관은 더 부정적인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8년 사회조사에 처음으로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이 포함되었는데, 2018년 기준 응답자의 30.4%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2020년 현재는 32.0%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 반대 비율



이 더 높아졌다. 특히 남성 27.3%, 여성 36.6%가 반대하여 남성보다 여성의 반대 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최근 저출산 현상의 심화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II-7).

[그림 II-7] 성별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2018-2020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면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전적으로 동의'와 '약간 동의'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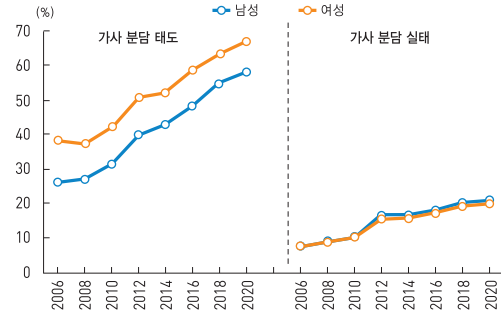
성역할 태도와 가사분담의 변화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중 가장 뚜렷한 것이 바로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분담에 대한 태도이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 비율은 2006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남성 57.9%, 여성 67.0%에 이른다(그림 II-8).

가사분담 행동도 점차 공평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2020년 현재 남성 20.7%, 여성 20.2%로,

2006년 남성 7.5%, 여성 7.9%보다 남녀 각각 13.2p, 12.3p 증가했다. 그러나 공평함을 지향하는 가치관과 실제 분담 정도에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201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48분, 여성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3시간 10분으로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약 4배 더 많다.

[그림 II-8] 성별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제, 2006-2020



주: 1)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는 2006-2010년은 만 15세 이상, 2012-2020년은 만 13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부부간 가사분담에 대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2)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는 19세 이상의 남편과 아내가 응답한 결과로 이들 중 평소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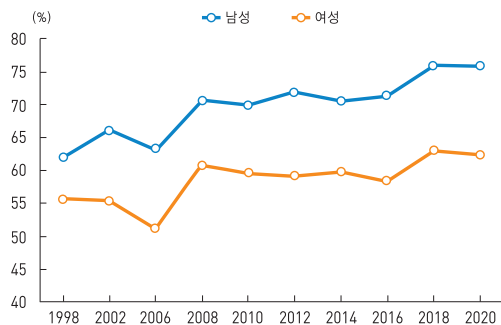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

가족관계 만족도는 배우자와의 관계 및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2020년 배우자와의 관계에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에 응답한 남성이 75.9%, 여성이 62.4%이며,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성별 차이는

13.4%p이다(그림 II-9).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연령대별 차이가 있다.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을 계산한 결과, 1998년 29세 이하의 부부 관계 만족도는 4.0점으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은 3.6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20년간 계속되어 2018년에도 29세 이하 부부의 부부 관계 만족도가 4.4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대 이상의 경우 3.8점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9] 성별 배우자 관계 만족도, 1998-2020



주: 1) 1998-2010년은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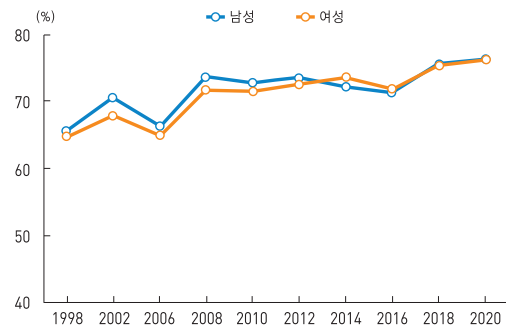
2) 부부 관계 만족도는 조사대상자가 부부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또는 '약간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부모-자녀 관계만족도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약간의 등락이 있다. 2016년에 만족하는 비율이 낮았고, 그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1998년 기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에 응답한 남성이 65.5%, 여성이 64.9%였

지만, 2020년에는 남성이 76.2%, 여성이 76.5%로 높아졌다(그림 II-10).

[그림 II-10] 성별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1998-2020



주: 1) 1998-2010년은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는 조사대상자가 자녀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또는 '약간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가족 돌봄

자녀 돌봄

어린 자녀나 아픈 가족 구성원, 연로하신 부모를 돌보는 것은 가족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다. 돌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가족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여전히 돌봄에 대한 일차적인 의사결정과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

영유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낮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어머니 41.6%,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50.0%, 조부모/친인척 5.6%,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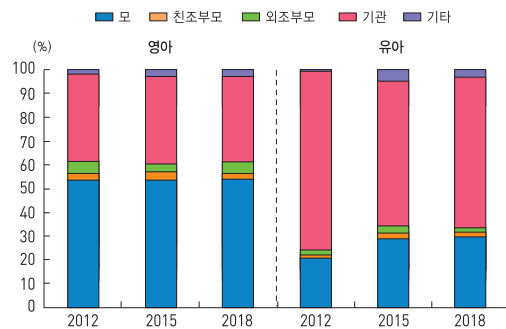
2.8%였다. 이러한 비율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2012년에는 어머니 37.5%,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56.0%, 조부모/친인척 5.5%, 기타 0.9%로,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2018년에 더 높아졌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더 낮아졌다. 2013년 이후 가정양육수당제도가 전면 확대되면서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돌봄 방식은 자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2012년 기준 만 2세 이하의 영아를 낮에 돌보는 사람은 어머니 53.9%, 기관 36.7%, 영아의 조부모 7.7%이었고, 유아는 어머니 20.9%, 기관 75.5%, 조부모 2.9%였다. 2018년 기준 만 2세 이하의 영아를 낮에 돌보는 사람은 어머니 54.1%, 기관 36.2%, 영아의 조부모 7.1%이고, 유아는 어머니 29.6%, 기관 63.5%, 조부모 3.9%였다(그림 II-11). 오히려 유아 가정에서 기관 이용 비율이 더 많이 감소하고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더 많이 증가하여 정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기관 휴원이 장기간되면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가정이 많았다. 2020년 3월 25-27일 이루어진 육아정책연구소의 「코로나 대응 관련 부모 1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에 자녀를 돌볼 사람/서비스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비율은 36.2%였고, 코로나19 상황 전후로 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있었던 가정도 59.0%에 달했다. 이 기간에 가

정에서 자녀를 직접 돌본 비율은 73.3%, 기관을 계속 이용한 비율은 16.8%, 기타 9.9%로 나타났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제공되었던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다(최윤경A·박원순·최윤경B·안현미, 2020).

[그림 II-11] 낮 시간 영유아 주양육자, 2012-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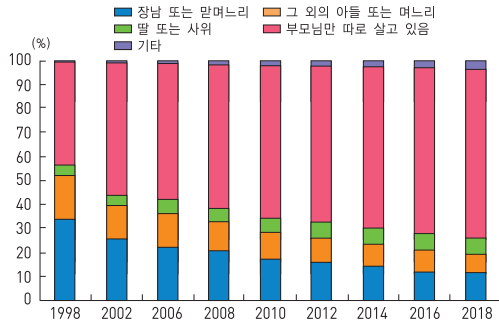


주: 1) 영아 및 유아의 대상연령은 보육연령 기준으로 영아는 0-2세, 유아는 3-5세임.
2) 통계치는 낮 시간 영유아 주양육자에 대한 응답률로, 기타는 부, 기타 친인척, 육아전문인력 등임.
출처: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2012, 2015, 2018.

노부모 부양

생애과정이 길어지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실제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2018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비율은 26.2%로 2008년 38.3%에 비해 12.1%p 감소하였다. 대신 부모만 따로 사는 경우의 비율은 2008년 60.1%에서 2018년 70.4%로 계속 늘고 있다(그림 II-12).

[그림 II-12] 노부모의 동거가족, 199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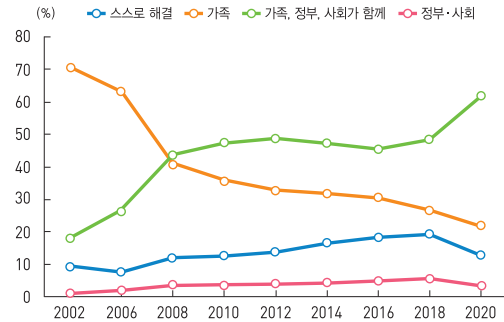
주: 1) 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신 30세 이상 가구주와 배우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의 부모님은 누구와 함께 살고계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3) 통계치는 해당 범주의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의 2002년과 2020년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면, 노부모 돌봄이 가족책임이라는 견해는 70.7%에서 22.0%로 크게 감소하였고, 가족과 정부·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견해가 18.2%에서 61.6%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II-13).

부모 부양책임의식의 약화를 반영하듯이 노부모가 스스로 생활비를 책임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부모 세대의 절반 이상인 55.5%가 스스로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다. 스스로 생활비를 책임지는 사람 비율이 46.3%였던 2002년에 비하면 9.2%p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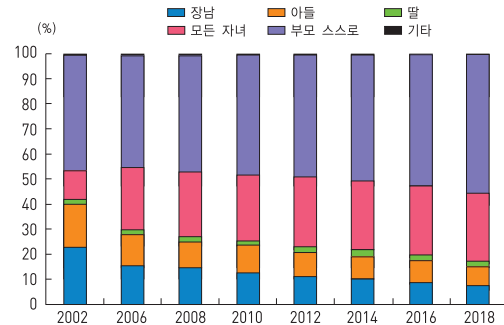
최근으로 올수록 장남을 포함한 아들이 부모의 생활비를 책임지는 비율은 줄어들고 아들과 딸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비율은 늘어나고

[그림 II-13]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의견, 2002-2020



주: 1) 2002-2010년은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부모님의 노후 생계는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고 질문되었음.
 3) 통계치는 해당 응답범주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II-14]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 2002-2018



주: 1)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생존해 있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부모님의 생활비는 주로 누가 드리고 있습니까?"라고 질문되었음.
 3) 통계치는 해당 응답범주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있다. 2002년에는 40.2%의 부모가 장남을 포함한 아들에게 생활비를 주로 지원받았으나 2018년에는 14.9%만이 아들에게 주로 생활비를 지원받고, 모든 자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비율은 27.2%로 이는 장남이 책임지는 비율과



아들이 책임지는 비율을 합한 것보다 더 높다 (그림 II-14).

맺음말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변화들은 개인화 시대의 한국 사회의 모습을 비춰준다. 혼인율이 감소하고, 동거라는 새로운 가족 형성의 선택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가 커지며, 출산의 당위성에 대한 규범은 약해지고 있다.

공평한 성역할 분담에 대한 동의 수준이 남녀 모두 높아지고 있지만,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약 4배 길어 여성이 가사를 책임지는 관행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와의 관계나 부모-자녀관계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어, 가족 내부적으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발견할 수 있다. 영유아와 노부모에 대한 돌봄의 책임과 수행이 사회로 이양되어 가족과 사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한국 가족의 특징 중 하나이다.

참고문헌

최윤경A, 박원순, 최윤경B, 안현미. 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긴급돌봄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